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착수

남원시, 지역 복지정책 방향 수립 위해 읍면동 순회 현장 의견 수렴

남원시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 15일 동충동을 시작으로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현장 의견 수렴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의 복지 여건과 주민 욕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실행 과제를 마련하는 지역 복지의 최상위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번 제6기 계획 수립을 통해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의 다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무엇보다 현장 중심, 시민 참여, 민관협력, 실행력을 핵심방향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와 함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여건 분석도 병행 추진,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추세, 1인 가구 증가, 취약계층 분포, 복지시설 및 서비스 공급 현황, 지역 간 자원 편차 등 각종 통계와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남원시 복지환경의 현수



남원시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 4월 15일 동충동을 시작으로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현장 의견 수렴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주민 설문, 현장 의견수렴,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등을 종합 반영해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의견이 함께 담긴 입체적인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남원시는 남원형 복지정책의 핵심 과제를 도출, 지역 내 복지수요 변화와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라과 세부사업을 재구성하고, 실제 추진 가능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민관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보건·의료 분야, 교육 및 돌봄 영역, 자원봉사·후원 네트워크 등의 연계를 통해 보다 폭넓은 협력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복지 문제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주민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선별해 남원민의 실정에 맞는 중장기 복지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행정과 민간, 지역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정책의 공감대와 실행력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자원 활용 체류형 관광 본격화

순창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참여지역 공모 선정

순창군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지역 특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한국관광공사는 순창군을 포함한 전국 8개 지자체를 2026년도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으며, 향후 혜택 등록과 QR 스캐너 설치 등을 거쳐 오는 6월 초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에게 숙박, 체험, 식음료, 쇼핑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방문과 소비를 유도하는 관광 플랫폼 기반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에서 지역 고유 자원과 관광 소비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점, 그리고 생활인구 확대를 정책 목표로 명확히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



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200만원 지원

순창군은 (재)순창군육친장학회에서 대학 신입생에게 1인당 200만원씩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은 순

창군에서 장학회에 사업비를 출연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축하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20일

까지 접수한 결과 총 179명이 신청해 중복지원자 등 5명을 제외하고 174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여기에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162명이며, 관외고등학교 졸업자 8명, 검정고시 합격자 및 재수생 등 6명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200만원씩 지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오수외견관광지 전역에서 제41회 의견문화제와 연계한 '2026 임실N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500만 반려가족 대축제 열린다

'임실N페스티벌' 5월 1-3일 개최

임실군이 1500만 반려인의 반려동물 대축제인 '2026 임실N페스티벌'가 가정의 달 5월의 첫 날, 화려하게 개막한다.

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오수외견관광지 전역에서 제41회 의견문화제와 연계한 '2026 임실N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41회를 맞는 의견문화제는 잠든 주인을 불길속에서 구하고 목숨을 바친 충견의 이야기를 담은 '오수의견' 설화를 기리는 축제로1982년부터 이어져온 임실군의 대표 향토문화 행사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반려동물 장기자랑 △전국 반려동물 토크쇼 및 패션쇼 △반려동물 올림픽(달리기·줄다리기·OX퀴즈) △스마트산업 박람회 △오수의견 FC어질리티 경기대회 △반려동물 위그웨어 패션쇼 등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한방센터, 행동교정 및 훈련체험, 인식표·목줄 만들기 등 다양한 전문 체험형 프로그램과 전시, 부대행사가 풍성하게 운영된다. 올해는 축제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한층 높일 신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FCI(세계애견연맹) 어질리티 대회'와 '1시간-1생활인구 연계 사업인 '오수마스터즈데이', 원광대 RISE사업단과 연계한 KKF 반려동물 위그웨어 패션쇼가 새롭게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막일인 5월 1일 축하공연에는 손빈아, 김려원, 강해연, 케이시가 마치 막대한 3일에는 '최갑석 가요제'와 함께 예능, 문화욕, 소명, 이미지 등이 출연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패션쇼에는 그들 V.O.S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반려견과 함께 개성 넘치는 런웨이를 보여주는 팀을 심사하고 토크쇼에는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와 이용종 교수, 설재현 수의사가 참여해 반려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먹거리 또한 풍성하다. 청정 임실에서 자란 안소 한우를 비롯해 치즈파자, 치즈아이스크림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가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임실농기센터,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추진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신제품 가루쌀인 '바로미2'를 활용하여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비 확대를 위해 '2026년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가루쌀(바로미2)는 농진청이 개발 보급중인 품종으로 기존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분쇄해 사용할 수 있고,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전분 구조를 가지고 있어 빵이나 과자 등을 만들 때 활용이 가능한 품종이다. 이번 교육은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습면에 위치한 농산물가공센터 실습교육장에서 매주 화요일, 총 3회에 걸쳐 실시되며, 한국음식교류연구소 김상경 소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임실=진종영 기자

지역 소식 등

순창군,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운영

순창군은 군민들의 복잡한 세금 고민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군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세무상담 지원 제도로 지역 세정복지 향상과 세금 신고 및 납부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용 대상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으로, 국제 및 지방세 세무상담은 물론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1차 상담으로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예약 후 2차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현재 순창군에는 2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이며, 세무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남원 소재 세무사(063-772-8222, 063-625-2219) 전화 또는 서면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중장년 찾아가는 심리지원 기동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중장년층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중장년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자살 사망자 가운데 중장년층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 관내 중장년 100명을 대상으로 사업장과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주요 내용은 자살 예방 교육과 정신건강 검사를 비롯해,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돕는 공예요법 기반 심리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CJ제일제당 남원공장과 연계한 프로그램은 5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 운영되며, 체계적인 마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